

(2024년도 4차)

2024년도 제4차 양구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양구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양구군의회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0월 18일(금) 오후 3시

장소 : 의장실

심사 안건

1.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담 결사저지 특별위원회 해외연수의 건

○ **간사 전진**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 전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원 2명, 민간위원 5명에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전원 참석하시어 7명의 위원님을 모시고 심사위원회를 개의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심사 안건은 양구군의회로부터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담 결사저지 특별위원회 해외연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규**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일규입니다. 의사일정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담 결사저지 특별위원회 해외연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 내용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간사 전진** 오늘 열리게 된 공무국외연수 심사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목적은 일본의 지역소멸 극복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농촌지역에서 성공한 예술제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우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연수개요입니다. 연수기간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까지 3박 4일이 되겠으며, 방문지역은 일본 도쿄 스미다구, 군마현 가와바촌, 니가타현입니다. 연수대상자는 양구군의회 의원 2분과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3분, 앞으로 새로 위촉되실 위원 1분, 소속직원 4명으로 총 10명입니다. 연수비용은 의원 및 직원, 특별위원회 위원이 약 155만 원이며 그 중 항공료가 62만 원입니다. 주요 연수 내용은 스미다 구에 위치한 스미다 호구사이 공공미술관, 군마현 가와바촌, 니가타현 에치고츠마리 예술제 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연수 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토론하겠습니다.

○ **간사 전진** 참고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촉되실 위원님은 10월 25일에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 예정이며, 연수대상자는 새로 위촉 예정 위원님 포함하여 10명입니다.

○ **신철우 위원** 위원장님, 간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장님께서 후반기 의장님이 되시면서 지역소멸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돈준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이 두 개로 나누어 진겁니다. 10명은 일본으로 가고, 나머지 분들은 국내 전남 진도, 화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소속 의원으로서 제척사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관계자들이 관계없다 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양구군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규** 일본에서도 양구 수입천 댐과 같은 경우가 있었나요?

○ **신철우 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특별위원회 명칭이 지역소멸위기대응 특별위원회였는데, 구성한 지 얼마 안 되어 수입천 댐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하자 하여 명칭을 바꿨습니다. 주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며, 일본 출장도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관련 있습니다.

○ **원영표 위원** 군마현이 지역소멸 위기 지역이었는데, 위기 지역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건가요?

○ **신철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지정한 거 같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간사 전진** 군마현 가와바촌은 온천 마을이며, 80%가 온천으로 돼 있습니다.

1971년에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하여 연간 2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일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 **원영표 위원**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하시고 우리군에 좋은 일보단 해결해야 할 일만 점점 생기는데, 밖에서 군민 입장으로 보면 답답한 점도 보이는 거 같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속 시원하게 칭찬이든, 내가 양구에 살기 잘했다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점이 제 개인적으로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우리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에 닥쳐있는데, 군마현을 벤치마킹하면서, 군마현은 양구군과 다른 점이 많을 것이고,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대안을 내실 때 군에서 성과 있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바라보는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일규** 이명호 위원님께서서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이명호 위원** 일단 양구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벤치마킹하는데 예산이 빠듯하면 증액해서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 **홍성철 위원** 방문 대상지가 어떻게 지역소멸 위기 대응했는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양구군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 **간사 전진** 그럼 방문 대상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날 동경의 스미다 호구사이 미술관을 방문합니다. 스미다 호구사이는 사람 이름이며 호구사이 미술관은 일본의 독특한 제도인 고향납세제와 크라우드 펀딩으로 설립한 미술관입니다. 고향납세제는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하며 크라우드 펀딩은 전국의 다른 지역민이 이 지역에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모아 미술관을 설립하였는데 그곳을 견학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가와바촌은 온천을 조성하여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한 지역입니다. 셋째날은 니가타현을 방문하는데 그 지역은 3년에 1번씩 큰 예술축제를 하는데 예술축제를 견학하고자 합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한 내용까지 회의자료에 넣겠습니다.

○ **장만선 위원** 예술 축제 기간인가요?

○ **간사 전진** 현재 예술축제 기간이며 11월까지 진행합니다. 축제는 3년에 한 번 진행합니다.

○ **홍성철 위원**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뭔가 실행한 사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연수 가서서, 지역 활성화된다고 판단이 되면 방문 지역과 협의해서 1년, 2년 가서 공부해야지, 한 번 견학 가서는 우리군과 연계되는 사업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결과 보고 할 때, 일본과 우리군이 비슷하고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파견제도를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철우 위원** 제가 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3차 포럼이 있었습니다. 1차 포럼은 강원연구원 김문숙 박사, 2차 포럼은 21사 단장 이진삼 장군, 오늘은 김경남 교수님이라고 지게놀이를 했던 분인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나에 대한 대안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런 포럼을 통해서 계속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문에 대한 결과물도 낼 겁니다. 집행부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다. 해달라는 결과물을 만들 겁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김선목 위원**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인구소멸이 가중화 되면서 정부에서 1년에 1조씩 10년 동안 소멸 지역에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양구도 지원되며 올해 3년 차입니다. 기존에는 센터나 한옥빌리지에 투자하고 있는데,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인구소멸대응 기금은 10년 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행안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 편입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 수 있는 합당한 사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거점센터라고 양구에 살아보고, 양구에 살고 싶다, 정이 간다, 하는 사람이 직접 집을 짓고 살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또 의회에서 요구한 게 미니전원마을 등 정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와 양구군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강남구청 가서 행사 참여하고 만찬 할 때 이런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고 강남구의회에서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겠다 하였습니다. 인구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도 많아질 수 있게 하라고 의회에서 조언합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아니고 견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집행하기 어려운데 의회에서 양구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테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신철우 위원** 지역소멸대응 기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철원 같은 경우는 고석정 꽃밭, 잔도를 지역소멸대응 기금으로 사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120억의 수입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지역소멸대응 기금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만큼 필요한 데에 쓰이는 기금이 돼야 한다. 효과가 나와야 하는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집행부에 얘기도 하고 사업도 제안합니다.

○ **홍성철 위원** 신문 보도를 보더라도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못 들었으니 제대로 쓰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묵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규**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위원 일동** 네.

○ **위원장 김일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저지 특별위원회 해외연수의 건」에 대하여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 일동** 네.

○ **위원장 김일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농촌과 관광, 예술을 접목시킨 국외 모범사례를 학습하여 우리군의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길 양구군의회에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 심사하느라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김일규

부위원장 홍성철

위원 원영표, 이명호, 장만선, 신철우, 김선묵

간사 전진